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2)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⑦

李後主 得畫一軸
이후주 득화일축
畫則出於腕外 夜刀歸於櫛中
주즉출어란의 야내귀어란중
持寶歸下 太宗 張後苑 以示群臣
지보귀하 태종 장후원 이시군신
俱無知者 惟僧錄贊寧 曰南後苑水
구무지자 유승록찬령 알남후해수
或感願難曉 微露 倭人 拾方諸
혹감탄적 미로 왜인 습방제

후 두화 검상관서목 고견어육조구본서중
此乃佛眼強識 見幾而作也
차내박문강식 견기이작야
훗날 두화(당나라 관리)이 삼관(황실
서고)의 책 목록을 검사하다가 과연 육
조시대의 오랜 책 중에서 발견하니
이는 널리 듣고 많이 알아 기미를 보
아서 지어 놓은 것이니라

⑨不求友 無以成
불구우 무이성
生我者 父母 成我者 朋友
생아자 부모 성아자 병우
故 君子 以朋友 講學
고 군자 이병우 강습

⑩ 벗을 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이룬 이
는 벗이니
고로 군자는 벗으로써 강습하고

以文會友 以友輔仁
이문회우 이우보인
品藻人物 商榷同異 如如如如 如如如如
품조인물 상각동이 여결여차 여결여차
劉孝標 云 緇衣 緇衣 緇衣 緇衣
유자표 운 조지인의 탁마도덕

이후주(중국 남당의 끝임금)가 소 그
린 한 폭을 얻었는데
낮에는 소가 그림 틀 밖으로 나오고
밤에는 안으로 되돌아 가거늘
대궐에 가져가 바치니 태종(중국 송
황제)이 후원에 펼쳐놓고 여러 신하에
게 보이자 아무도 아는 이가 없고 오로
지 승록(승적 관리하는 벼슬) 찬령이
아뢰기를 남쪽 일본바다에 간혹 물이
줄면 여울에 씻긴 자갈이 조금 드러나
는데 왜인이 이 자갈을 주워서

絳籍中有餘淚數滴者 得之
방석중 유여루수적자 득지
和色着物則盡而復顯
화색착물즉진수은이아현

“벗으로써 강습하고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道를 돕는 것이 군자의 경지”

沃梅山 時或風搖蕩擊 忽有石落海岸
옥초산 시혹풍소표격 홀유석락해안
得之 滴水 磨色染物則盡而復現
득지 적수 마색염물즉진수은이아회
諸學士 皆以爲無稽
제학사 개이위무계
聖 曰見張翥 海外異記
령 알견장건 해외이기

歡其樂 恤其憂
환기유 홀기우
寄通靈臺之下 遺跡江湖之上
기통영대지하 유적강호지상
風雨急而不礙其音 雲霧縹而不渝其色
풍우급이불협기음 운무염이불유기색
斯乃興達之素交 歷萬古而一遇
사내현달지소교 력만고이일우

큰 조개 속의 이슬 몇 방울을 얻어
색을 섞어 물건에 바른 즉 낮에는 숨고
밤에는 드러나며 옥초산(큰 바다 속에
있다는 전설의 산)에 때로 큰 바람이
일어 불이 날때 홀연히 돌이 바닷가에
떨어지는데 옥초산(큰 바다 속에 있다
는 전설의 산)에 때로 큰 바람이 일어
불이 날때 홀연히 돌이 바닷가에 떨어
지는데 이슬 얻어 물 몇방울 섞어 갈아
서 색깔을 들이면 낮에는 드러나고 밤
에는 안보인다 하였다.
여러 선비들이 모두 사례를 알 수 없
어 믿을 수 없다 하거늘
찬령이 가로되 장건(실�크로드를 개척
한 한나라 장군)이 해외의 기이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다 하였다.

글로써 벗을 모으며 벗으로써 인(도)
을 돕는다.
성품과 글로 인물을 가려보고 같고
다름을 헤아리되 자르고 짝고 찌고 가
는 것 같이한다.
유자표(중국 양나라 사람)가 이르기
를 인의를 조직하고 도역을 같고 닦으
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겨워하고 차차
쇠하여 감을 슬퍼하며 늘 마음으로 통
하러하고(영대:마음) 자취를 강호에 남
겨서(낙시대 드리우고 마음자리를 살
핀) 비 바람이 급해도 그 소리가 그치
지 않고 눈과 서리가 내려도 그 색이
변치 않는다(부동심의 경지. 기개를 잃
지 않음)하였다.
이것이 어찌게 통한 이들의 사귀이라
만고의 세월에 한번 만남일까 한다.
龍眼

後 杜鎔 檢三館書目 果見於六朝舊本中

여름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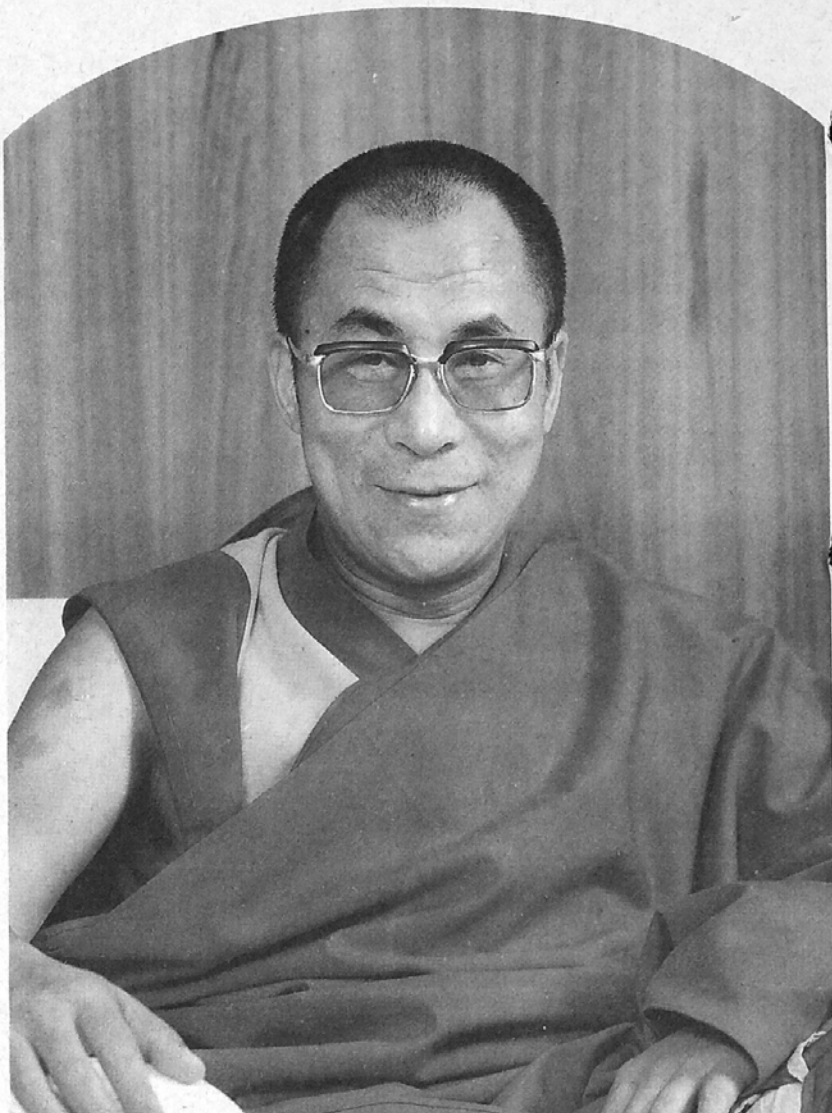
해외 고승 지상법석

“업의 과보 받아 들이며

달라이라마

(티벳)

티벳의 종교, 정치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1935년 7월6일 티벳
동북지방의 다곳셀이라는 곳에서 제13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임
이 증명됐다.
1939년 포탈라 궁에서 제14대 달라이라마로 즉위하고 12년간
방대한 양의 경전과 논서들을 섭렵했으며, 1959년에는 중국군의
티벳 침공으로 인도 다름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웠다.
35년간 세계 각지를 순방하며 전 세계의 평화와 자비의 실현
을 위한 강연을 했으며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종교적 수행은 단순한 육체적
변화나 사찰에서의 생활, 경전의
암송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
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종교적
수행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
다. 종교적 수행은 스스로 생각하
고 실천한다는 관점에서 행해져
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그러한
가르침을 자신의 생각에 받아들
인다면 몸과 입으로 짓는 모든
업들은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즉 수행에 도움
한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능력들
을 한곳에 모아야 합니다. 인쇄
심, 정상을 다함, 결단력 그리고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을 즐기는
능력 등은 모두 수행을 위한 마음
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일반적
인 잘못된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
는 한 열심히 그리고 순수하게 수
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의
에너지와 의식의 미세한 층들을

가르침을 올바르게 얻는 길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

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기의
생각에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
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암송한다
거나 혹은 사찰에서 생활을 한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위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보를
귀의처로 받아들이고, 업과 그 과
보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달음에 관해 말을 할 때는 매
우 가까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며,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
니다. 그러나 실천을 해야 할 때
는 갑자기 멀게 느껴지며 도달하
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
순점을 알았다고 해서 낙담해서
는 안 됩니다. 정신적 수행에 관
제외하고 잠깐동안의 깨달음의
신호에 신경 쓰지 않고 수행을 계
속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
니다.
처음에 작은 깨달음의 신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멀리하여 깨달음을 생각함
으로써 수행을 지속적이고 안정
되게 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진전
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진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
를 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깨달
음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가르침들은 우리들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들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
다. 일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당
신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
들과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보십

시요, 수행을 잘 했다면 진리의
거울에 어떤 진전의 흔적이 나타
날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정화
되어 가는지 모르고 우리 존재의
잘못된 부분에서 그러한 신호를
찾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지 않
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
엇일까요? 이러저러한 환상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모든 수행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채택해서 전천
히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마음은 진화하는 기관입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켜거나 끄는 기
계가 아닙니다. 마음을 묶어 제한
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내던
지는 힘은 일시적인 작용을 할 뿐
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닦으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
며, 마음을 묶는 힘은 멀리 사라
지는 것입니다. 무지와 '나'에 대
해 집착하는 증세는 무시 이래로
설명하고 그것을 채택해서 전천
히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거하는 것은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
하게 수행할 때 어둠의 힘은 약해
지고, 어둠을 상대하고 마음을 밝
히는 영혼의 힘은 강해지고 확고
해 집니다. 그러므로 선정과 삼매
를 수행함으로써 평온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처님을 스승으
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광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를 구제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두 번째로 스승의 위대

대원불교대학
학생 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〇〇명
통신과정 〇〇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학년 (1학년, 2학년) and 과목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가 및 종교학, 완경장독 I)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